

Robert Yarbrough 박사, 목회서신, 세션 1, 소개

© 2024 로버트 야브로(Robert Yarbrough)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Robert W. Yarbrough 박사와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야보로입니다.

저는 거의 40년 동안 가르쳤고 많은 목회 활동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주로 미국에서 가르쳤지만 루마니아, 수단, 남수단, 남아프리카에서도 가르쳤습니다. 홍콩, 호주, 한국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한 나라에서 가르칠 때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터넷 세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이다.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좋지만, 교회가 전 세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의에서 목회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전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식 순서입니다.

그리고 디도서가 디모데전서 이후에 기록되었는지 이전에 기록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표준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의 제목을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두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목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 개척자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통에서는 감독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목회자의 일을 감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영어로 사용되는 비숍(bisho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단순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들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설명에 거의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목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이나 이 책에 붙은 이름은 종종 목회서신.

그러면 우리는 이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은총, 그들이 확인하도록 촉구받는 것, 그들이 제공하도록 부름받은 봉사의 종류 등이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신자들이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2장에 나오는 목회자의 자격은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 책들은 난해한 편지나 교회의 한 부분만을 위한 일종의 특별 권고가 아닙니다.

이는 지도자와 추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정한 조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강의를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더 큰 맥락에서 성경의 일부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에 걸쳐 성경을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PMEEC라는 약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차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차트에서 보게 될 것은 성경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진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중심 초점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그의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소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약 77%가 구약성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복음을 위한 준비서이고 약어 PMEEC에서 P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네 복음서는 좋은 소식의 표현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살았고, 가르치셨고, 운동을 창시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고, 나타내셨고, 기반을 마련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죄에 빠진 세상.

그 다음에는 복음의 확장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딘가로 갔다. 이 운동은 로마 세계에 뿌리를 내렸으며,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때부터 약 3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는 40일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로부터 약 30년 후,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사슬에 묶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가 60년대 초반 어느 시점이므로 30년입니다. 32년, 그런 식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리스도인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행전의 복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 구약에 예비된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모습은 어떤 것 같나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서신서를 보게 되는데, 서신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거나 때로는 설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든 에베소든, 아니면 현재 터키에 있는 교회든, 사도행전의 유산에 나타난 복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과 문화적 배경을 대상으로 한 편지이며, 편지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일관성도 많고 공통점도 많습니다. 상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목회자들에게 다가갈 때 특히 목회자들이 기회와 위험, 위협 등에 대해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신약성서의 서신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설명하고 설명하는 사도행전의 유산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소식에 더해 좋은 소식은 교회 생활이 끝없는 러닝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지 행복과 비애가 계속되는 순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확장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경 전체가 있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서신서의 일부입니다. 이 편지들은 잠언, 잠언 30장 5절에 대한 설명이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피신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잠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쁜 소식이 너무도 많은 세상에 복음의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흠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신께 피신할 때 당신은 당신 백성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의에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효과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역에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내면화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세상에서 그것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디모데전서에 관한 몇 가지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의 저자에 대해 몇 가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개요를 보면 저자가 Paul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 세계에서는 바울의 저자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고 이에 관한 책이 저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다가 목회서신에 대해 계속 읽으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이론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면 상황을 주의 깊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쓰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은 환멸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1805년경부터 교회 지도자가 바울이 목회서를 썼는지에 대해 정말로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참고로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FC 바우어(FC Bauer)와 HJ 홀츠만(HJ Holtzmann) 등 많은 독일 학자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독일의 일부 대학에서는 목회자의 서신이 다른 바울서신과 달라서 쓰지 않았다는 이론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가 이 편지들을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 위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기록한 것에 대해 정당한 회의론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회 서신을 읽을 때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라틴어 문구를 사용했지만 그것을 번역하고 나누고 정복할 것입니다.

나누어서 정복하세요. 목회자나 특정 주제에 대한 특정 진술을 취하여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로마서처럼 들리지 않거나 빌립보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바울의 다른 서신이나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분리함으로써 그들은 목회서신에는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말한 내용과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 편지를 썼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서구 학계의 지배적인 이론이 되었습니다. 서양 대학에 다니면, 서양 신학교를 많이 다니면 바울이 목회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좋은 요약, 이러한 아이디어의 발전, 그리고 그에 대한 좋은 비평을 원한다면 Luke Timothy Johnson이 Anchor Bible Commentary 시리즈에 주석을 썼습니다. 약 100페이지 길이의 그의 서문에는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10~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심하게 비평했고 나는 그것이 아주 좋은 비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비판은 훨씬 더 간단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글을 지지하는 것은 역사적 주장이며, 바로 서신서의 주장이다. 목회서신 세 권의 첫 번째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울로스(Paulos)입니다.

Paulos를 번역하기 위해 그리스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Paul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문서를 읽을 때, 우선 이 문서는 위조되었다고 말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것이 위조되었다고 말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Paul이 그것을 썼다는 주장으로 시작하고 그것은 Paul이 그것을 썼다는 것을 지지하는 주장입니다.

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특히 디모데후서에 이르면 전기와 자서전적인 세부 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고 디모데가 첫 번째와 디모데가 쓴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를 대표한다.

둘째, 교회 논쟁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1세기 후반의 기독교 작가들 사이에는 클레멘스(Clement), 이그나티우스(Ignatius), 폴리카프(Polycarp)과 같은 작가들이 목회 서신을 인용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는 데 합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썼다는 데는 합의가 있고 교회의 처음 4~5세기 동안 적어도 5세기의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바울이라고 불릴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울이 쓸 가능성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울이 이것을 썼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1800년 동안 교회에서 책의 저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가 갑자기 그가 쓸 수 없는 이론이 나타나면,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가 등장할 때까지 왜 모두가 이것을 놓쳤는지에 대한 매우 강력한 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는 이 책들을 읽고 바울이 그 책을 썼다고 생각했던 최초 1800년 동안의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 독일 대학의 합의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이고 그것은 성경에 대한 회의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에 파괴적입니다. 회의적인 해석학이다. 역사비판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 비평의 후원을 받는 동안 성경에 관해 좋은 내용과 진실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단어의 의미와 책의 의미에 대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양의 교회를 보면, 그것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참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수록, 교회의 더 많은 목사들이 일종의 회원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데 평생을 바쳐야 합니까? Paul이 이것을 쓰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닌가? 좀 부정직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해야 할까요? 이것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는 세계의 넓은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꾸란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이슬람 학자들은 종종 Schleiermacher, Holtzmann 또는 Bauer와 같은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기초한 회의적 태도를 좋아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유주의적 또는 역사적 비판적 서양 학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그래서 나는 이 특정 문제에 대해 역사적 비판적 접근, 회의적 접근의 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 그 결과가 교회에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둡고 교리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회의적인 견해에서는 목회자들의 서신과 바울의 다른 서신들 사이, 그리고 목회자들의 서신과 사도행전 사이에 구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목회자들 사이에는 많은 일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목회자들의 편지와 바울의 다른 편지들 사이에 많은 일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토대로 저는 로마서를 썼고, 골로새서를 썼고, 빌레몬서를 썼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쓴 동일한 작가라고 말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성서론적 논증이 있는데, 성서론은 성경의 교리이거나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55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보내신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서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진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성경이 입증하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완전하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가 그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에게 주신 말씀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이 구절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inerrancy라는 단어를 갖게 되었고 저는 inerrancy를 사용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오류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두 단어는 어떤 단어를 선호하든 거의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성경을 높이 평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높은 존중을 바탕으로 바울이 목회서를 집필하는 것을 지지하는 네 번째 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려는 전부입니다.

나는 목회서신을 살펴보면서 여기저기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폴의 후기 생애 중 어느 때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들은 바울이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 에베소에 몇 년 동안 머물고 고린도에 한두 해 동안 머물던 사도행전 속 시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케도니아로 여행하여 그는 디도와 디모데를 어딘가에 남겨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 즉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움직임에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반증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55-60 범위에서 언젠가 썼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행전이 끝난 후에 목회자들의 글을 썼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다가 풀려난 다음 몇 년 동안 여행을 하며 이 기간 동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석방된 후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썼다는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일반적인 견해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디모데 1-2서와 디도서를 찾는 데 사용할 대략적인 날짜입니다. 그가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 도달하면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거기 에베소에 머물라 이는 네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시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저는 이 강의에서 NIV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권면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디모데전서가 디모데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가 그곳에서 복음의 임재를 보존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확장하고 파괴하는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권의 본질은 확장하고 구속하며 온전케 하고 향상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티모시에게 매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디모데전서 강의를 들을 만큼 복음에 대해 진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진지하다면 아마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디모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회의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문을 통해 네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나는 단어 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교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he, a 같은 관사도, and, or so, but 같은 접속사도 아닌 눈에 띄는 의미 있는 단어에 대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어는 일반적으로 명사 또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빈도는 집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원칙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것은 아마도 문서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문헌에서 사람들이 배경 자료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다지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약성서의 모든 서신에서, 특히 바울의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이나 그가 쓴 이유, 또는 어떤 갈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당사자들 사이. 그는 사회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누렇게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22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가 빈도수 4번과 5번으로 등장하고 가장 자주 함께 나열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빈도수 15번에서는 주님이 6번 언급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합산하면 God이라는 단어가 거의 40회 또는 정확히 40회 발생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돕고자 하는 것처럼, 그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가 계속해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디모데가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디모데의 성공을 성사시키거나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종종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복음이 요구하는 행위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것들은 작품이라고 불리며 좋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선하다, 아름답다, 고귀하다라는 말을 16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면 숫자 6이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과 여덟, 남자 또는 사람, 여자 또는 아내. 그리고 17번으로 내려가면 그는 남자나 남편을 다섯 번 언급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주파수 목록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홉 번째 가르침인 디다스칼리아(didascalia)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의 역할이 단지 가르침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르침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교사이다. 목사라는 단어는 영어와 라틴어에서 목자라는 단어와 동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목자이다. 목사는 관료가 아니다. 목사는 지도력을 행사하지만 통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전통에는 선한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주된 활동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입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섬긴 주요 목적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이것은 일종의 공식적인 용어이지만 우리는 Under-shepherd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큰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랫목자가 있고, 그 다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그 말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며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는가? 이제 우리는 경건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단어인 유세비아(Eusebia)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문헌을 들여다보면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다른 어떤 서신에도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가 어휘력이 풍부한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정한 편지를 쓸 때 특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편지를 쓸 때에도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책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더 이상 십자가를 믿지 않았다거나 다른 누군가가 이 편지를 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다른 문자가 다른 어휘를 불러일으키는 것뿐입니다. 목회서한에서 그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경건함과 성실성을 반영하는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태도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디모데전서에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고스(logos)라는 단어가 나오며, 종종 그것은 기독교 메시지를 언급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과부는 5장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할 것입니다. 훌륭한 장입니다. 그 다음은 진실과 일과 사랑이다.

이것은 일상적인 기독교 용어, 일상적인 목회적 돌봄, 일상적인 교회 생활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일이 사실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허위와 거짓말이 도처에 떠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기를 원한다. 그건 에르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장에서 그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전체 목표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요한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가져오는 모든 것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모든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제목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공식적인 새로운 기독교 교육

계획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장소는 복음의 내면화가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얼마나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민족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봉사하고 있었습니까? 기억하세요, 바울과 디모데는 둘 다 유대인이고 이방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히 로마 세계는 약 90%가 비유대인이었고 아마도 8~10%만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로마제국에서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유대인 환경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특히 다수 인구뿐만 아니라 소수 인구에 의해 종종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료 유대인들이 종종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그들은 왜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까? 그 대답 중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반역하는 세상을 참으시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복음이 바울의 개종을 통해 심어준 하나님의 근본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 나타냈고,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관해 몇 마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언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도행전을 다시 살펴보면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아마도 유대인 회당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즉 다이아나의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에베소를 로마 제국의 디즈니 월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이 웅장한 사원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마술과 오컬트 수행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여행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끝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는데, 나는 이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습해서 페이지가 서로 달라붙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춘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말하고 예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그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아가야나 고린도로 이동했지만 바울은 에베소로 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서를 읽고 있거나 디모데전서를 읽고 있다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아볼로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세운 작은 세포 그룹이 새 생명을 얻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왔을 때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시작하여 몇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그러면 바울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남자는 모두 12명 정도였다.

그리고 그 12장은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이고 아마도 사도 시대의 12장과 일종의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증해 줍니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야말로 교회가 실제로 교회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는 많은 유대인이나 초기 유대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룩한 성과 연관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우리는 그가 완전히 이방인 지역인 율바에서 고넬료와 함께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을 네 번째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를 확인시켜줍니다. 첫째,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바울의 손을 통해 이런 나타남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마귀의 요새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새로운 나타나심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로부터 약 25년 후, 에베소의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유대인들에게도 강화되는 성령의 새로운 나타남이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효과와 동일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동일한 복합 단지가 에베소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마와 신비주의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오컬트는 숨겨진 흑마술, 흑마법을 의미할 뿐입니다.

에베소는 이러한 신앙과 행위의 실천의 중심지였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우리는 바울이 사역할 때 악귀들을 쫓아내며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도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오라 명하노라 하더라. 이들은 유대 대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더라. 그리고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사탄이 이 거짓된 자들에게 쫓기는 것에 얼마나 지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에게 악한 영을 가득 채워 일곱 형제를 사로잡았고, 일곱 형제를 때려 벌거벗고 피를 흘리며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작동 중인 매우 강력한 마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가고 이 기사가 나가니라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알려지매 다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이 높은 영예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마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도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지원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시는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트작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숨깁니다. 아니면 어떤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숨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속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 때 종종 교회의 일부가 되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악마적이고 신비로운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는 마술을 행하던 어떤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모아서 공개적으로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의 가치를 계산해 보니 총액이 50,000드라크마였습니다.

그것은 행운입니다. 이로써 여호와와 말씀이 널리 퍼지고 세력이 커졌느니라.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한 말이 생각나네요 영역.

그는 에베소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찰했으며,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어둡고 강력한 세력이 많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나는 사도행전 19장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다루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9장의 매우 많은 부분은 NIV가 제목에서 말하는 폭동, 즉 에베소의 폭동에 대해 할애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대중에게 퍼지자 은으로 만든 우상을 사서 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었고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사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

내가 초기 기독교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는 다른 신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은세공인들은 돈을 잃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나서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구타를 당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저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저항, 정치적 저항, 상업적 저항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문화적인 사람들은 문화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운 분야에서도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터툴리안의 유명한 말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복음의 저항이 항상 순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역사상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있는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고든 콘웰 신학교(Gordon Conwell Seminary)의 세계 기독교 연구 센터는 지난 수십 년, 즉 21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예상하면 연간 약 90,000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할 것으로 계산합니다. 박해. 그리고 그것은 하루에 247입니다. 따라서 어떤 날은 더 적고 어떤 날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나 중국, 이집트 또는 다른 곳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 고백과 관련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의 역사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비극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애도하며 아마도 우리 중 누구도 오늘 기독교 고백을 위해 자원하여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적으로나 깊이 있는 성장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제압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백성을 멸절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셨고, 하나님은 에베소를 밀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긴장이 디모데가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어둠의 세력이 이기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는 그의 하인들을 불러 일어서서 세어보고 그의 반발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 포인트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의 이름은 목회서신에 네 번 언급되어 있으며,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이방인 곧 헬라인인 제자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랍비의 계산에 따르면 랍비들은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면 당신도 유대인이고,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자랐음을 강조하며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성경, 즉 구약성경에서 신실하게 자랐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가 태어난 동네인 루스드라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복음이 전파된 동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들었던 것은 그때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그에게 2차 전도 여행에 실라와 함께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첫 번째 선교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여행이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이다.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에 등장했고 남은 생애 동안 바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이념적으로나 선교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를 다양한 임무에 파견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디모데전서의 경우처럼 그는 그를 뒤에 두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그의 오른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표를 여러분에게 읽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석서에도 나오는 표가 있습니다. 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약 25만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1분에 125단어 정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논평을 여러분에게 읽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 한두 주 동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하려는 일을 이 강의에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대순으로 디모데에 대한 모든 언급을 담고 있는 주석의 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쓴 주후 50년대 초에 시작됩니다. 그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과 디도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우리가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AD 57년경일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첫 절에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서에서 언급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1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서 1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의 이름은 바울의 편지 중 여덟 통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두 명의 목회자에게서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서신 세 통에만 디모데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도서는 우리에게 디모데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고 자료에 따르면, 디모데만큼 바울의 운동과 수년 동안 그의 가르침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거나 여기에 지명되기 위해 경쟁할 후보가 있다면 그것은 Luke일 것입니다.

누가도 바울의 여행동무이자 바울의 절친한 친구였으나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화와 교회의 성숙에 그토록 밀접하게 연루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복음 봉사에 대한 부르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참호에서 땀을 흘리는 드라마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강의를 들을 여러분 중 몇몇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에 대해서, 당신은 두려움에 대해 알고, 당신이

어떻게 일을 숨겨야 하는지, 어떻게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나 방문자에 대해 항상 의심합니다. 그들이 보안 담당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수년 동안 매우 어려운 곳에서 바울과 함께 봉사했고 그에게 많은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일들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디모데후서에 이르면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너는 우리 주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의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를 능히 지키실 줄도 확신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신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읽어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받는 이 박해가 올 줄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 복음을 거역하는 일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련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2장을 읽을 때 이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유대가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 맺는 유대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도 함께 고통을 겪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매일의 삶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사역과 의무에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죽기까지 충실할 수 있는 깨지지 않는 유대를 형성합니다.

하물며 디모데와 바울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였고, 에베소와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동역자요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충성하였더냐? 나는 목회 서신의 독특한 점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평가들이 말할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바울의 편지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편지들이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은 목회자들을 쓸 때 로고스 피스토스(logos pistos)라는 관용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이고, 피스토스는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어의 작동 방식처럼 항상 동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사 두 개만 말하면 문장이 나오거나, 이 경우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고스 피스토스(logos pistos)는 신실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책이 저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확신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당시 Paul과 아마도 Paul과 그의 직계 동료들에게 유행했던 일종의 격언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은행에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내용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이것이 우리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말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1에 있습니다. 감독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고귀한 일을 원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 다음 디도서 3:7-8에서도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상속자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칭의에 관해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일을 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서신에 점을 찍는 것이 이 문구, 신실함이라는 단어라는 점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면서 그 말이 우리에게 충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의 삶과 봉사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Robert W. Yarbrough 박사와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 소개.